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세례 축일

제36권 7호(다해) 2016년 1월10일

[묵상]



주님 세례 축일

하느님은
인간실존의 한계상황과 죄스러운 처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을 받아 들이셨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당신 백성들과 구별하여 보다 우위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온전히 백성들의 일원이 되셨고
특별히 죄인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죄하면서도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 스스로를 죄인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묵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
즉 제 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면 '꿀값'을 못하는 것이다.
꿀값하는 신앙인이 되자.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사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생) 변복순 베로니카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변세연 대진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안나, 이사범 로벨도, 이종수 마틴, 김계성 아가다 & 박희성 테레사, 연옥 영혼, 이종희 요셉, Robert Polk, 김준경 요한
	(생) 정동호 하상 바오로, 김종렬 베드로 가정, 육재민 미카엘 가정, 육지현 켄마 가정, 박정미 클라라, 우영희 엘리사벳 가족, 민순삼 사비나 & 박씨니 마가렛, 백삼위 성가 단원들 (아도라테 & 글로리아), 황윤재 베드로 가정, 하버 카슨 만원들, 권바오로 & 세실리아 가정, 김지훈 대진안드레아,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42,1-4.6-7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 2독서 사도 행전 (Acts) 10,34-38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요한이 말하였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복음 루카(Luke) 3,15-16.21-22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한국 교회의 역사

2-3. 조선교구의 설정

이에 조정에서는 1839년 다시 박해를 일으키어 앵베르(Imbert, 范世亨, 1796~1839년) 주교를 비롯한 3인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처형하였다. 이때 순교한 신자들로는 유진길(劉進吉, 1791~1839년) 등을 들 수 있다. 정하상이 「상제상서」(上宰相書)를 지어 천주교 신앙을 변호한 것도 바로 이 박해에서였으며, 그 또한 이때 순교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에 들어온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김대건(金大建, 1821~1846년), 최양업(崔良業, 1821~1861년) 등을 선발하여 중국의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 후 김대건은 한국인 최초로 사제로 수품되어 국내에 돌아와 활동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몇몇 신자와 함께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체포되어 1846년에 순교하였다. 그의 순교를 전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리고 최양업도 사제가 되어 귀국하였다. 최양업 신부는 산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면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교리 내용을 쉽게 알려 주기 위하여 「사향가」(思鄉歌)를 비롯한 천주교 가사를 지어 부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천주교 가사는 신자들의 묵상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교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죽었다. 이처럼 선교사들과 조선인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발전되어 갔다.

교회 초기부터 186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신자 수는 다음<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속 >

연도	신자수	외국인 선교사	조선인 신부
1789	1,000	0	0
1790	4,000	0	0
1796	10,000	1	0
1859	16,700	8	1
1865	23,000	16	0

<박해시대의 교회현황>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3	241	183
봉헌	255	267	261
성체	303	289	289
파견	241	235	235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제와 신자들끼리는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니, 서울주보에 쓰는 저의 첫 문장도 강론할 때나 글을 쓸 때처럼 똑같이 썼습니다.)

오늘은 마침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요르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빌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이 천상 선언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이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할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딸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본당의 세례식에 참여한 어느 교우가 보내준 글의 일부입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자신이 세례받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신자들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세례성사 때의 모습이 떠올라 미사 내내 조용한 설렘과 함께 그날의 기억과 제 신앙생활을 더듬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은총이 제 마음에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5년 전 강렬한 힘으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셨지만, 저는 세상의 소리만을 듣느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어둔 밤’을 헤맸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절실히 찾았을 때 제 기도예 귀를 막고 계신 하느님, 저를 잊어

버리신 하느님이라고 확신하며,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던 시간도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로 고백해 봅니다. 세례성사 내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느님, 그리고 넘어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살게 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제 인생의 어떤 고통 앞에서도 숨길 수 없이 제 삶으로 증거되어 매력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제1독서에서 예수님의 사명이자 세례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 풀어주기 위함이다.”(이사 42,6-7)

세례 축일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이 미움과 불신, 폭력과 테러 등의 죄와 상처로 얼룩진 오늘의 세상에 구원과 해방의 기쁜소식을 선포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성령과 힘을 받고(사도 10,38 참조) 새로 태어난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딸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 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우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1,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늘(1월10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전례력으로는 이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 신청 : 1월 24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화)저녁7시30분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2월10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1월31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요셉회 신년모임.

- 일시 : 17일(주일), 미사후
- 장소 : 강당
- 당일 모임 후 영화관람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한국학교 2 학기 등록
기간 : 1월 10일부터 (1월17일 제외)
* 1월 31일까지 등록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2월 7일부터)
대상 : 8 학년 이상 (수강료 \$ 200.)
 - 1 학기말 시험 - 1월 24일 2교시
성적 우수자 시상식 - 1월 31일 학생미사 중
 - 학부모 간담회
* 주제 : 학교와의 소통 그리고 건의사항
* 일시 : 1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3시
* 장소 : 강당
- 한국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또는 103skcecks@gmail.com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10일 * PV3반 : 배추 된장국 (\$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 (9학년)
- 1월 17일 * 토동1반 : 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 : 피자 (10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병철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정선						성전헌금	금영도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정선 김정엽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현숙	남성철		김현숙	남성철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문향엽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송영미		엄정자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송제훈	엄정자	오신재	오일순	우영희	유보나		이은록	장영우	전제식	조준제	주용순	최기남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최길주	최태훈					
이종필	장영우	장은희	전제식	전정일	조소영								
조준제	주용순	최기남	최길주	최태훈	현석주								
황철수													
합계:\$7,845							합계 : \$1,935						
주일미사 헌금:\$2,824						성모마리아 대축일 : \$2,153	성물판매이익금(12월):\$ 975						2차헌금 : \$ 594
안나회 동전모금 : \$610.77							감사헌금 : \$1,600(우희균, 문향엽)						

◆ 꾸르실료 3박4일 주말

남가주 꾸르실료 영어 남성 제 40 차 주말과 영어 여성 제 40 차 주말이 1월과 2월 에 Assisi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본당 울뜨레아 간사님이나 이 E- Mail로 연락을 주십시오: kaccmcs@gmail.com.

이 피정에 참석하려면 적극적인 교회활동 참여를 통해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 일시: 영어 남성 제 40차:1월 21일(목)-1월 24일(주일)
- 영어 여성 제 40차: 2월 11일(목)-2월14일(주일)
- 장소: 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 주소: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남가주 소식

◆고 이태석 요한신부 6주기 추모행사

- 일시 : 2016년 1월 16일(토)오후6시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2040 Artesia Bl Torrance, ca 90504
- 문의 : (310)617-3110 권 가브리엘라

◆ 성경대학 CD판매안내

예수회 송봉모 신부의 성경대학 CD로 영적 성장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1학기부터 8학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아그네스 성당사무실(323-731-4433)
업무시간 (수~토) 오전 10시~12시, 오후1시~5시)

E-Mail : stakcc@gmail.com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 공 데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4박5일)

- 일시 : 2016년 2월 10일(수)-14일(주일)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지도신부 : 이근상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숙식제공)
- 문의 : 정도로테아 (323)937-2083, 818-321-9505
전글라라 818-317-6022

◆미주 가톨릭 방송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제 메히털다 1/12(화) 오후 4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1/09(토) 오후 6시,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5(금) 오후7시30분, 강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삼크리스티나 490-9662	엄혜은 도로테아 1/16(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1/09(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6(토) 오전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희 아네스 1/17(주일) 오후1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2(화) 오전11시30분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이재용 안드레아 994-6762 1/16(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울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1/1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팜스프링 야외모임 1/16(토) 오후 7시 성당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구역미사 1/22(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정미 아네스 1/8(금)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구역미사 1/22(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구역미사 1/22(금) 오후7시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회장단 회의	19일 오후 8시
--------	-----------

세례의 추억

국제선 항공기를 타다 보면 참 재미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앞뒷자리는 물론이고 옆자리 승객도 같은 요금을 내고 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일찍 항공권을 구입했는지, 어떤 경로의 항공 여정을 택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요금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엔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이 압박해서야 항공권을 구입하다 보니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 탓이니 어쩔 수 없지요. 저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치른 값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늘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주일미사에 참여하러 성당에 왔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지만, 모르는 얼굴이 더 많습니다. 신부님과 제대만 바라보며 참여하다가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에야 드디어 앞 뒷자리, 옆자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저 건너편 교우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아는 얼굴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교우일 경우엔 바로 옆자리 교우들이라도 건성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저 분들은 어떤 연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마다 다른 세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중 교우들도 있을 테고, 이웃의 권면으로 세례를 받게 된 분들도 있을 것이며, 스스로 성당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게 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일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묵시 3, 20) 저마다 하느님을 만난 경로가 달라도 하늘로 가는 기차 샅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부의 차이, 직업의 귀천, 나이나 성별 등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하느님의 집에 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실 주님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제 주위 교우 분들 모두가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로 신나게 함께 달려가는 여행을 기원하며 화살기도를 바쳐 봅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고 있던 교우들에게 인사할 때에도 제 입가에 저절로 번지는 미소를 느끼게 됩니다.

◆하창식 프란치스코 / 교구평협 회장

금과 은 나 없어도

언젠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었다. 무슨 일이시냐고 하니, 공동체 안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 기간이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아직 갚지를 않아서 마음이 많이 상한다는 것이다. 매 주일 성당에 와서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아도 평정심이 무너지고, 미사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분심만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아니,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듣고 보니 웬만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다. 이럴 때 내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당장에라도 이 자매의 손에 쥐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매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난 감했다. 그런데 은총이 있었는지 순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사도 3, 6)

‘그렇다. 나 역시 은도 금도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이 자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매에게 전해주고, 이 금전 관계로 인한 갈등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니 눈앞에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물었다.

“자매님! 혹시 돈 빌려준 그분이 지금 자매님께 갚을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돈으로 뭔가 사업을 한 모양이던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리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모양이에요.” “그럼, 그 돈 없으면 자매님이 먹고 사시는 데 많이 불편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요, 자매님, 이번 성탄 때 예수님께 좀 특별한 선물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돈 빌려 가신 분이 갚을 능력도 없고, 자매님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돈 이번 성탄 때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왜요? 아까우세요?” 처음에는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신부가 다 있느냐는 눈으로 한참을 보더니 이른다. “신부님, 예수님 드린다는데 그까짓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활짝 웃는다. 훨씬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이 자매의 뒷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에 평화를 되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언젠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던가! 아마도 이 자매는 훗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천국 사거리를 썽 썽 달리지 않을까 싶다. 그때 나도 길 안내 해드렸으니 조금만 태워달라고 부탁이나 해봐야겠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일본 히로시마 선교

여성 판관 드보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 임금이 등장하기 전 한동안 이스라엘은 판관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명한 판관들이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임금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하느님께 기도를 한 후에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서 출병을 명령합니다. 그때 그는 드보라에게 어떻게 대답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4,1-10

드보라의 명령대로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적편 장수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의 군대를 모두 모이게 하였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병사 만 명을 거느리고 산에서 내려가 시스라의 군대와 혈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바락의 군대가 승리하자 적장인 시스라는 모든 군사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4,11-16

시스라는 천신만고 끝에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시스라가 마실 물을 청하자,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누가와서 자신을 찾거든 없다고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 후 과연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4,17-24

구약 성경에 보면 판관은 왕은 아니지만, 민족을 지도하는 통치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판관 시대에 강력하게 민족을 통치할 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느님은 유능한 판관을 보내시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판관이란 ‘구원자’라는 뜻으로 재판관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위기 상황에서 군사 총사령관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에서 이기는데 드보라의 용기는 남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과 용기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께서 함께 가시면 ()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도 가지 않겠습니다.” (판관 4, 8)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요. ()께서 반드시 그대 앞에 서서 나가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이 그 만 명을 거느리고 타보르 산에서 내려갔다. (판관 4,14)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성인말씀]

성령 없이는 성자를 볼 수 없으며,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 성자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성 이레네오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열리사렛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1110 LA(에쿼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 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B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